

## 현주간지 7월호 정오표

### #정오표

현주간지 7월호 정오사항 전체를 올립니다.  
이 정오표를 다운 받아 꼭 확인하시고 공부에 참고해 주시고,  
코리안에듀 콘텐츠팀은 앞으로도  
더 정확하고 올바른 편집에 신경쓰겠습니다.  
구독자분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공부하면서, 궁금한 점이 있을 때에는  
<https://class.orbi.kr/teacher/181/question> 에 몇주차 교재인지 말씀해 주시고 문의해 주시면  
더 빠르고, 정확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외에 선생님에게 개별 문의가 있을 시에는  
[you@korean-edu.co.kr](mailto:you@korean-edu.co.kr) 로 문의 남겨주세요.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들기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코리안에듀 대표 유현주-

## 25주차 1일차 13~15번 해설 수정

정답									
1	④	2	②	3	②	4	⑤	5	③
6	④	7	④	8	⑤	9	③	10	②
11	②	12	④	13	①	14	④	15	③
16	⑤	17	⑤	18	③	19	④	20	④

### 13

#### 정답해설

① 정을선은 유모를 통해 춘연의 억울한 죽음을 알게 된 후 원귀가 된 춘연을 위로하고자 춘연을 찾아와 만남을 시도하므로 적절하다.

#### 오답해설

- ② 정을선은 익주자사에게 관자를 보내 그를 유 승상의 부중으로 불러 자신이 정을선이 맞다는 것을 춘연에게 밝혀 달라고 부탁하고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 ③ 유 승상은 딸이 죽은 이유를 알고자 노 씨의 시비를 심문하고 있지만 그가 죄상을 털어놓지 않아 형벌을 주고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 ⑤ 춘연의 빈소 앞에서 교지를 읽은 사람은 유모가 아닌 언관이므로 적절하지 않다.

### 14

#### 정답해설

④ ㉠은 오랫동안 밀폐되어 있던 춘연의 방의 분위기를 묘사하는 것일 뿐, 정을선에게 닥칠 위기 상황을 암시하는 것은 아니므로 적절하지 않다.

### 15

#### 정답해설

③ 춘연이 거절의 의사를 밝힌 이유는 비록 자신이 훈령이지만 남편이 아닌 외간 남자와 한 공간에 함께 있을 수 없고, 자신과의 만남을 요구하는 과객이 정을선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 때문이다. 가족 구성원으로서의 복귀를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한 것은 아니므로 적절하지 않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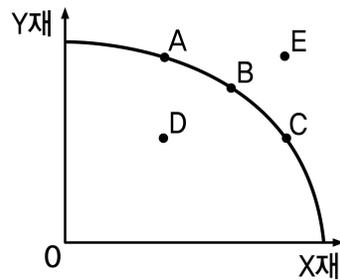
#### 오답해설

② 정을선은 춘연이 원귀가 된 사연을 유모에게서 전해 들은 후 자신의 과오를 깨닫게 되고 이에 춘연에게 용서를 구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④ 춘연은 천자에게 직접과 교지를 받음으로써 자신의 억울함을 씻게 된다. 정을선을 받아들이는 춘연의 모습은 그의 원한이 풀렸음을 의미하므로 적절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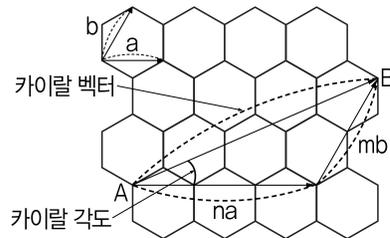
⑤ 정을선이 춘연의 환생을 위해 약을 찾아 나서는 것에서 춘연이 가족의 구성원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조력자의 모습이 드러나므로 적절하다.

## 25주차 2일차 독서 ① 지문 그림 추가



<그림>

## 26주차 2일차 독서 ① 지문 그림 추가



<그림>

## 25주차 3일차 독서 ① 해설 수정

정답									
1	④	2	⑤	3	⑤	4	④	5	④
6	⑤								

### 01

#### 정답해설

④ (가)는 1문단에서 환기 이론을 정의한 다음 2문단과 마지막 문단에서 그 세부적인 내용을 기술하고 있으며, 특정 입장의 한계를 지적하거나 그 대안을 제시하지 않았다. 반면에 (나)는 1문단에서 환기 이론과 대비되는 이론인 표현 이론을 소개하였고, 2문단에서 모방에 의한 환기로 음악의 감정을 설명하는 입장의 한계를 지적하였으며, 마지막 문단에서는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으로서의 표현 이론을 제시하였다.

#### 오답해설

- ① (가)와 (나) 모두 환기 이론이나 표현 이론이 음악 작품의 창작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지는 않았다.
- ② (나)는 표현 이론을 옹호하는 과정에서 환기 이론을 비판적으로 다루었지만, (가)는 오직 환기 이론만을 소개하고 있다. 즉, (가)는 음악이 감정을 소유하는지에 관한 다양한 입장을 다루지 않았다.
- ③ (가)는 포레의 「리베라 메」를, (나)는 슈베르트의 「겨울 나그네」를 구체적인 예로 제시함으로써 각각의 입장을 부연하고 있다.
- ⑤ (가)는 특정 이론의 확립 과정을 통시적으로 다루지 않았다. (나)는 환기 이론의 한계를 지적하였지만 특정 이론의 적용 범위를 공시적으로 서술하지 않았다.

### 02

#### 정답해설

⑤ (가)의 2문단에 따르면 환기 이론은 ‘슬픈 음악은 슬픔을 환기하는 표현성을 갖는 것이지 그 음악에 슬픔이 내재하거나 음악이 슬픔 자체를 표현하는 것이 아니’ 라고 보고 있다. 즉, 환기 이론에 따르면 음악 작품은 작품에 내재된 감정을 외부로 표출하는 것이 아니다.

#### 오답해설

- ① (가)의 2문단에서 ‘청각을 통해 확인되는 음악의 특성’이 음악의 표현성이라고 하였다.
- ② (가)의 마지막 문단에 따르면 환기 이론은 ‘음악이 사람의 특성을 모방한다’ 고 보는 입장이다. 또한 ‘「리베라 메」

의 저음은 슬픔으로 인해 발걸음을 제대로 옮기지 못하는 사람의 움직임을 연상시’ 킨다고 하였으므로, 이 저음은 사람의 움직임을 모방한다고 볼 수 있다.

- ③ (가)의 마지막 문단에서 우리는 ‘다른 사람의 모습을 보고 그 사람에게 공감하는 성향’ 을 갖는다고 하였다.
- ④ (가)의 마지막 문단에서 ‘일반적으로 우리는 사람을 닮은 대상을 접하면 사람을 연상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 다고 하였다.

### 03

#### 정답해설

⑤ (가)의 2문단에서 ㉠은 ‘청각을 통해 확인되는 음악의 특성에 의해서 발생하는데, 이와 같은 특성을 음악의 표현성이라 한다.’ 라고 하였다. 또한 ‘음악에 친숙한 사람이라면 슬픔에 관한 표현성을 갖는 음악 작품을 듣고 슬픔을 느낄 수 있다.’ 라고 하였다. 반면에 ㉡은 ‘개인적인 기억이나 사회적인 함의 등’ 에 의해서 발생하는 환기이다. 따라서 ㉡이 발생했을 때와 달리 ㉠이 발생했을 때 음악에 친숙한 사람들은 대체로 일치된 감정을 느낄 것이다.

#### 오답해설

- ① (가)의 마지막 문단에서는 음악의 표현성을 ‘음악이 사람의 특성을 모방한다는 것’ 으로 설명하고 있다. 또한 ‘「리베라 메」의 저음은 슬픔으로 인해 발걸음을 제대로 옮기지 못하는 사람의 움직임을 연상시’ 킨다는 예를 들고 있으므로, 음악이 대상의 시각적인 측면을 모방하는 경우에도 ㉠이 발생함을 알 수 있다.
- ② (가)의 2문단에 따르면 ㉡은 ‘개인적인 기억이나 사회적인 함의 등의 비음악적 요소에 의해 환기가 이루어지는 것을 뜻’ 한다. 따라서 높은 음조의 빠른 곡이라 하더라도 감상자가 그 곡에 관한 슬픈 기억을 갖고 있다면, 그 곡은 슬픔을 환기할 것이다.
- ③ (나)의 1문단에 따르면 ‘표현 이론은 음악 작품이 특정한 감정을 환기할 수 있음을 인정한다.’ 이 입장을 지지하는 학자들은 ㉡이 학문적 탐구의 대상이 아니라고 보고 있지만, 이는 ㉡이 발생할 수 없다고 본 것이 아니다. 또한 (나)의 2문단에서는 모방을 통한 ㉠이 발생했을 때 ‘감정의 세기가 미미한 수준에 그치거나 일정한 정도를 넘기 어렵다’ 고 보지만, 역시 ㉠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 ④ (가)의 마지막 문단에 따르면 ‘환기 이론의 주된 관심사는 음악의 표현성이 무엇인지를 해명하는 데 있다.’ (가)의 2문단에 따르면 표현성은 ㉡이 아닌 ㉠과 관련된 개념임을 알 수 있다. 한편 (나)의 1문단에 따르면 ‘표현 이론을 지지하는 학자들은 개인적인 기억을 비롯한 비음악적인 요소를 통해 음악이 감정을 환기하는 것’ , 즉 ㉡은 학문적 탐구의 대상이 아니라고 본다. 또한 (나)의 2문단에서는 ㉠만

을 비판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 따라서 환기 이론과 표현 이론 모두 ㉠보다는 ㉡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 04

### 정답해설

- ④ (나)의 마지막 문단에 따르면 표현 이론은 ‘음악이 감정을 지닐 수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고’ 보는 입장이다. 하지만 ‘사람 혹은 의인화된 존재만이 감정을 지닐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발생하는데, 표현 이론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페르소나를 도입하고 있다. 페르소나는 「겨울 나그네」의 나그네, 혹은 순수 기악 음악의 의인화된 존재에 해당하므로, 페르소나의 존재를 도입하면 사람 혹은 의인화된 존재만이 감정을 소유할 수 있다는 생각을 포기할 필요가 없다.

### 오답해설

- ① (나)의 마지막 문단에 따르면 표현 이론은 ‘감정은 본질적으로 의사소통에 수반하는 것이’며 ‘우리가 감정을 느낀다는 것은 어떤 주체가 소유한 감정이 우리에게 전달되었음을 의미한다.’라고 보면서, 음악의 감정을 소유한 주체로서 페르소나를 도입하고 있다. 따라서 음악을 듣고 감정을 느낀다는 것은 페르소나와 의사소통을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 ② (나)의 마지막 문단에 따르면 페르소나는 ‘복합적인 감정을 소유하고 그 감정을 강렬하게 표현할 수 있는 주체로서 음악 내에 존재한다.’ 따라서 어떠한 감정도 표현하지 않는 음악 작품이라면 굳이 페르소나의 존재를 인정할 필요가 없다.
- ③ (나)의 마지막 문단에 따르면 표현 이론은 ‘가사나 표제가 없는 순수 기악 음악의 경우에도 우리가 감정을 느낄 수 있는 것은 페르소나가 의인화된 존재로서 그 음악 내에 존재하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가사가 있는 가곡인 「겨울 나그네」의 경우와 달리, 순수 기악 음악의 경우 페르소나는 오직 음악의 감정을 통해서만 확인되므로, 음악 감상 이외의 방법으로는 그 존재를 확인할 수 없다.
- ⑤ (나)의 1문단에 따르면 표현 이론은 ‘음악이 실제로 감정을 소유하고 표현할 수 있다고 보는 입장’이고, (나)의 마지막 문단에 따르면 그 감정을 소유하고 표현하는 주체로서 페르소나를 도입하고 있다. 따라서 ‘이 음악은 즐겁다.’라고 말하는 것은 ‘이 음악 내의 페르소나는 즐거움을 표현한다.’라고 말하는 것과 마찬가지로이다.

## 05

### 정답해설

- ④ <보기>의 ‘병’은 ‘우리가 음악을 듣고 느끼는 감정은 음악이 우리에게 환기하는 감정일 뿐’이라고 본다는 점에

서 (가)의 환기 이론에 가까운 입장이다. 그런데 ‘병’은 ‘페르소나 같은 어떤 존재를 가정하는 것’이 유용하다고 보면서, 우리가 ‘운명에 맞서려는 의지를 가진 존재를 우리 스스로 상상’한다고 본다면 음악이 ‘운명에 맞서려는 의지’와 같은 복합적인 감정을 강렬하게 환기한다고 볼 수 있다고 말한다. 그런데 (나)의 마지막 문단에 따르면 표현 이론이 도입한 페르소나는 ‘음악 내에 존재하는’ 반면에 ‘병’은 ‘페르소나 같은 존재’를 상상 속의 존재로서 도입하고 있다. 즉, ‘병’의 입장을 따른다면 우리 스스로 상상해 낸 페르소나가 감정을 소유하는 것이지 음악이 감정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다. 반면 (나)의 1문단에 따르면 표현 이론은 ‘음악이 실제로 감정을 소유’한다는 입장이므로, ‘병’은 음악이 감정을 소유할 수 있는지의 문제에 있어서 표현 이론의 입장에 동의할 수 없을 것이다.

### 오답해설

- ① <보기>의 ‘갑’은 ‘음악이 환기하는 감정이란 음악 감상의 과정에서 생기는 부산물’이라고 보고 있으며, (나)의 1문단에 따르면 ‘표현 이론은 음악 작품이 특정한 감정을 환기할 수 있음을 인정한다.’ 따라서 ‘갑’은 표현 이론과 마찬가지로 음악이 감정을 환기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 ② <보기>의 ‘을’은 ‘우리가 음악 작품을 듣고 느끼는 감정이란 곧 작곡가가 소유한 감정이라고 보’고 있다. 반면에 (가)의 1문단에 따르면 환기 이론은 ‘음악의 감정이 온전히 감상자에게 속한다고 보는 입장’이므로, ‘을’은 환기 이론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또한 ‘을’은 음악의 감정을 소유한 주체를 작곡가로 파악하고 있으므로, (나)의 마지막 문단에서 표현 이론이 도입하고 있는 페르소나와 같은 모호한 대상을 도입할 필요는 없다고 볼 것이다.
- ③ <보기>의 ‘을’은 ‘작곡가가 음악 작품을 창작하는 것은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기 위해서라고’ 보고 있다. 작곡가가 감정을 표현하는 대상은 감상자인 우리일 것이므로, ‘을’의 견해는 (나)의 마지막 문단에서 제시된, ‘감정은 본질적으로 의사소통에 수반하는 것이’라는 표현 이론의 취지에 부합한다. 따라서 ‘을’은 표현 이론과 마찬가지로 음악을 듣고 감정을 느끼는 것을 작곡가와 감상자 사이의 의사소통으로 파악한다고 볼 수 있다.
- ⑤ <보기>의 ‘병’은 ‘우리가 음악을 듣고 느끼는 감정은 음악이 환기하는 감정일 뿐’이라고 본다는 점에서 (가)의 환기 이론에 가까운 입장이라고 볼 수 있다. (나)의 1문단에 따르면 표현 이론을 지지하는 학자들은 모방에 의한 환기만으로는 음악의 감정의 다양함과 강렬함을 설명할 수 없다고 비판한다. ‘병’의 제안은 음악을 들으면서 페르소나 같은 어떤 존재를 상상한다고 본다면 음악이 ‘운명에 맞서려는 의지’와 같은 복합적인 감정을 강렬하게 환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병’은 표현 이론이 도입한 개념인 페르소나를 절충적으로 수용함으로써 환기 이론의 한계를 보완하는 방안을 모색한다고 볼 수 있다.

---

---

## 06

### 정답해설

- ⑤ '상정'은 두 개의 표제어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는 '어떤 정황을 가정적으로 생각하여 단정함. 또는 그런 단정.'이라는 의미이고, 다른 하나는 '토의할 안건을 회의 석상에 내어놓음.'이라는 의미이다. 본문의 ㉞는 어떤 정황을 가정적으로 생각하여 단정한다는 의미이므로 전자에 해당한다. 그러나 '논란이 된 안건을 다음 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다.'에서의 '상정'은 후자의 의미로 사용되었다.

### 오답해설

- ① '내재'는 '어떤 사물이나 범위의 안에 들어 있음. 또는 그런 존재.'의 의미이다.  
② '획득'은 '얻어 내거나 얻어 가짐.'의 의미이다.  
③ '인식'은 '사물을 분별하고 판단하여 앎.'의 의미이다.  
④ '해당'은 '무엇에 관계되는 바로 그것.'의 의미이다.